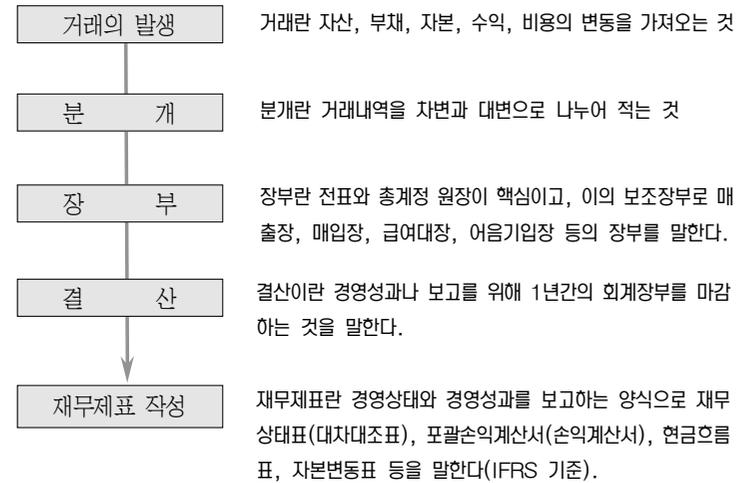


왕초보 회계용어



[주] 장부에서 장부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전기란 옮겨서 기록한다는 한자식 표현 용어이다.

■■■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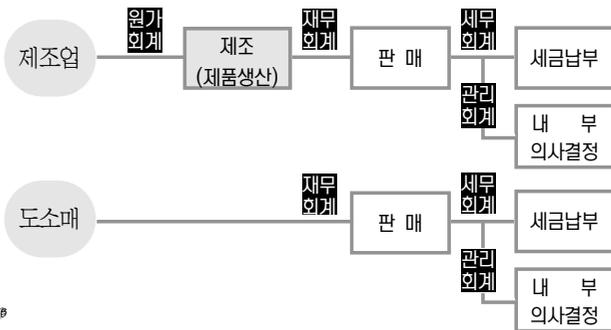
회계는 기업의 주주, 채권자, 투자자, 과세당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본인에 맞는 의사결정(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회계의 목적). 다시 말해 회계는 배당에 관심이 있는 주주에게는 배당과 관련한 정보를, 경영성과에 관심이 있는 경영주에게는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를, 과세자료에 관심이 있는 세무당국에게는 과세에 근거가 되는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

① 경영활동의 성과 :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에 얼마의 이익과 손해를 봤는지 : 손익계산서(동태적 보고서) ⇒ 포괄손익계산서(IFRS 기준)

② 재무상태의 변동 상황 : 일정시점의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상황 : 대차 대조표(정태적 보고서) ⇨ 재무상태표(IFRS 기준)

구 분	회계정보 이용목적	관련규정
재무회계	투자자나 채권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 제공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으로 회계라고 하면 재무회계를 말한다.	기업회계 기준서 등
원가회계	원가회계는 제조업에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으로 관리회계에 포함된다.	제반규정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내부이용자인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말한다.	
세무회계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회계로서 재무회계정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회계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체는 실무상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재무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세무조정 과정이 세무회계에 속하게 된다.	세법

[주] 실무자의 재경업무 과정상 재무회계에 따른 처리 후 필연적으로 세무회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초보실무자의 업무편의상 재무회계지식을 쌓은 후 세무회계를 접하는 것이 보다 지식습득에 유리할 수도 있다.



회계기간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는 1달의 이익을 계산할지, 1년의 이익을 계산할지 그 기간을 정해야 하는 데 이를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드시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할 필요는 없다.

또한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일정기간을 단위로 나누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데 분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3개월 단위 재무제표이고, 반기는 6개월 단위 재무제표를 말한다.

구분	해설	구분	해설
기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일반적으로 1월 1일)	기말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일반적으로 12월 31일)
당기	이익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도(재무제표 작성연도가 예를 들어 2010년인 경우 2010년)	전기	당기의 이전 회계기간(예 : 2009년)
		차기	당기의 다음 회계기간(예 : 2011년)
분기재무제표	3개월 단위 재무제표(예 : 1~3월 까지 등 분기별)	반기재무제표	6개월 단위 재무제표(예 : 1~6월까지 등 반기별)

회계의 순환과정

회계는 그 업무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항상 일정한 틀을 형성하며, 반복된 활동을 하게 되는 데 이를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한다. 즉, 회사에 출근해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를 발행하고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시산표)를 만들고, 다시 이를 집계하여 월계표(시산표)와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1년간 일련의 활동을 매년 반복하게 되는 데 이를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회계거래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비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즉, 재산이 늘거나 줄다거나 이익이 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회계에서는 사건으로 보며 동 사건을 거래라고 표현을 한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 일상적으로는 계약이라고 하나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보지 않는 반면, 화재나 도난시 일상에서는 재해 등으로 취급을 하나,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본다.

구 분	해 설
일상적 거래이나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	❶ 구두계약(약속, 주문)의 체결 및 상품주문의 접수. 단, 계약금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임. ❷ 종업원 채용 계약
회계상 거래	❶ 인건비 지급 및 미지급 ❷ 차입금 및 상품판매(단순한 상품 주문만은 거래가 아님) 등 ❸ 도난, 화재, 보유자산 사용 및 파손

차변과 대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항상 차변과 대변으로 거래내역을 나누어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 차변은 왼쪽을 말하고, 대변은 오른쪽을 말한다. 그리고 그 표기에 있어서는 '차변) 현금 대변)상품, 차)현금 대)상품, 현금/상품' 등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나 표기방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을 기록시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과목은 서로 틀리나 금액은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복식부기의

원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리직원이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3만원을 지출한 경우, 소모품을 구입한 원인에 의해서 3만원의 현금이 지출되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분개를 한다.



차변) 소모품	30,000	대변) 현금	30,000
차) 소모품	30,000	대) 현금	30,000
소모품	30,000	/	현금 30,000
자변금액과 대변금액은 항상 일치			

분개

회계기록의 도구로는 장부가 이용되어 지며, 모든 장부는 분개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 즉, 분개란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계정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커피, 음료수를 3만원에 구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분개라고 한다.

차변) 복리후생비 30,000 대변) 현금 30,000

실무상 분개를 하는 장소는 전표 또는 분개장을 이용한다.

계정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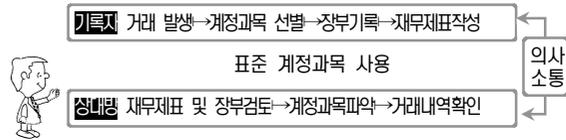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에 맞는 계정과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3월 10일 근로자 급여로 1천 만원을 지급했다. 라

고 일일이 모든 내역을 풀어서 써야 할까?

그러면 장부를 적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통일도 안 되며, 이를 수정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수정, 집계 가능하도록 함축적으로 표현가능하게 회계에서 정한 약속이 계정과목이다. 즉, 계정과목을 정해두고 특정거래는 어떤 계정과목을 쓰라고 정해둬으로써 편리하게 장부를 기장(= 장부에 기입하는 것)하고, 이를 집계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장부의 기장 전에 반드시 계정과목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장부기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계정과목은 장부를 적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언어가 되는 것이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는 동일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때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부기는 거래를 분개해서 각 계정에 기입하였을 때 잔액 또는 합계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일치)라고 한다. 만약 대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장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수정을 해야 한다.

구 분	해 설
거래의 이중성	거래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발생이 차변과 대변의 결합관계로 나타나며, 각각 동일금액이 기록된다.
대차평균의 원리	거래 발생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 차변과 대변이 항상 동일금액이 기록되고, 따라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장부의 기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발생주의

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거래내역을 적게 되는 데 장부에 적는 기준시점이 있다. 즉, 회계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순환을 하게 되는 데 거래내역을 금년 장부에 기록하느냐 내년 장부에 기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를 기록하는 기준시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이다.

1. 발생주의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건을 팔고 대가로 주고받는 현금의 지출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라도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을 한다.

2.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장부의 기록을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를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주의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선수, 선급 등 이연 항목과 미수, 미지급 등의 발생 항목, 대손충당금등 추정

항목도 기록될 수 없다.

■ ■ ■ 측정과 인식

1. 측정

측정이란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식을 위해서는 측정절차가 필요하며,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측정기준	자산의 측정
역사적원가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
현행원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
실현가능가치	정상적으로 처분할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
현재가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액의 현재할인가치

2. 인식

인식(認識)은 회계상의 거래를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비용 등의 재무제표항목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거나 포함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인식을 할 때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계정과목과 금액을 기술해야 하며, 각 계정의 총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인식은 회계상의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인식한 항목에 대한 변화나 제거를 인식하는 것도 포함한 개념이다.